

## 1. 추진 배경

-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코스피200지수 선물·옵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

\* 일평균 거래량('02년→'11년, 천계약)

- 코스피200선물: 175 → 351 (100.5%↑), 코스피200옵션: 7,745 → 14,805 (91.2%↑)

- 그러나 장내 파생상품이 협소\*하여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하고, 시장참여자도 제한되어 시장이 불균형하게 성장\*\*

\* 한국거래소에 15개 상품 상장(미국 CME 926개, 독일 EUREX 206개)

\*\* 금융투자업자만 장내파생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주식·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거래 치중(전체거래량 중 주식관련 97%)

- 성숙경제·고령화의 진전으로 개인투자자의 중위험·중수익 투자수요가 확대\*되고 있으나 투자기회가 제한적

\* ETF 자산총액 19.4조원('13.12월말), ELS 발행잔액 37.9조원('13.9월말)

## 2. 주요 내용

- 현물거래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 제공하고,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

- (선물시장 개설) 변동성지수 선물시장\* 및 20년만기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수단 확대

\* 한국거래소에서 산출·발표하는 “코스피200 변동성지수”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의 미래변동성에 관한 위험관리 가능

- (신상품 도입) 개인투자자의 중위험·중수익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증권(ETN)\* 등 신상품 도입(하반기)

\*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권(법상 파생결합증권)으로 거래소 상장·매매

- (시장 참가자 확대) 파생상품 기초자산 거래가 많은 실수요자의 원활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장 참여방식 변경\* 검토

\* (현행) 현물업자 등은 현재 위탁거래만 가능

→ (개선) 자기거래에 한해 시장 직접 참여거래 허용 검토

### 3. 향후 추진계획

- 거래소 시장 참여자 확대 의견수렴 및 방안 마련(상반기)
-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개설 및 상장지수증권(ETN) 도입(하반기)
- 만기20년 국채 선물시장 개설('15년)